

# “당신의 마음을 힐링해드립니다”

BBS불교방송TV '마음 인생을 바꾸다 시즌2'



BBS불교방송TV '마음 인생을 바꾸다 시즌2'가 새롭게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힐링이 대세인 요즘 BBS불교방송TV '마음 인생을 바꾸다 시즌2' (연출 이영우)가 새롭게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선업스님(팔랑복선원장), 최은경(BBS아나운서), 아운(불자가수)이 진행을 맡은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출연해 상담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규영은 '나는 문제 없어'로 인기를 모았지만 잇따른 앨범 실패로 고난을 겪었다. 현재 재즈밴드를 만들어 새롭게 재기하는 모습을 프로그램에서 보여준다. 창업컨설턴트 홍순재 씨 역시 스물일곱에 주얼리 사업으로 70억을 벌었다가 사업실패로 노숙자 신세로 전락 다시 창업 컨설턴트로 재기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불자가수 아운 첫 MC 데뷔  
가수 황규영 등 게스트 출연

'마음 인생을 바꾸다 시즌2'는 현재 첫 녹화를 마치고 8월 27일 오후 2시 첫 전파를 탄다. 담당 이영우 피디는 "지난 2011년 황수경 교수(동국대)와 최은경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1년 간 방송돼 인기를 끌었다. 방송종료 후 불교계 힐링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꾸며 시즌2를 제작하게 되었다"며 취지를 전한다.

처음 MC를 맡게 된 불자 가수 아운은 "MC로는 첫 무대라 많이 떨렸고 긴장했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녹화를 끝낼 수 있었다. 게스트들과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나도 힐링을 받은 느낌"이라며 "앞으로 불교계의 재간동으로 토크히 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이밖에도 '마음 인생을 바꾸다 시즌2'는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례자가 전화연결 상담을 하는 코너가 마련돼 있으며 불교 5대명절 특집 힐링콘서트도 진행한다. 방송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전파를 타며 수요일 오후 12시 30분·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재방송 된다.

정혜숙 기자

# “찬불가도 이제 전문교육 시대 돌입했죠”

동국대평생교육원 찬불힐링스쿨 개강



동국대 평생교육원 박경준 원장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부르고 있는 찬불가는 삼귀의와 사후서원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음정을 맞춰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다들 제각각으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를 의식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게 사실이지요. 그만큼 찬불가에 대한 인식과 절실한 마음가지가 부족하다는 뜻이겠지요. 찬불힐링스쿨은 찬불가의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 그 영역을 확대하고 불자들에게 신심을 심어주기 위한 첫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동국대 평생교육원 원장 박경준 교수(불교학과)는 찬불 힐링 스쿨의 개설 취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8월 21일 동국대 평생교육원 원장실을 찾아 9월 개강을 앞두고 있는 '찬불가 힐링스쿨'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왔다.

찬불가는 불교신앙의 한 축을 이루며 불법홍포의 필수불가결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처님에 대한 예경과 찬탄뿐 아니라 참회와 발원 명상과 선정 깨달음과 진리 기쁨과 치유의 노래가 곧 찬불가다. 하지만 찬불가의 현실은 여전히 인적 물적 기반이 빈약한 상태로 불자들에게 생활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박경준 원장은 찬불힐링스쿨 개원은 전문 음악인 양성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한다.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동국대는 음악대학이 없습니다. 이런 아쉬운 점을 보강하기 위해 평생교육원에서는 2011년 음악원을 만들어 클래식 전문 음악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조계종 종립학교라는 동국대의 취지에 걸맞는 찬불가 교육 과정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결국 찬불가의 발전과 불교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설된 프로그램이 찬불가 힐링스쿨입니다.”

강사진도 화려하다. △숙명여대 음대 대학원 석과를 졸업한 소프라노 정영스님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 바리톤

9월 9일~12월 16일 15주 과정

이론과 실기 갖춘 프로그램 눈길

전문음악대학원 설립이 목표

김재일(서울대 음대 석과와 강사) △중요무형문화재 제 5호 판소리 이수자 채수정 △이화여대 예술대학 한국음악 전공 강사 강권순 △불교사 선불남성합창단 지휘자 민선희 △한국방송예술교육원 겸임교수 이동원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교육과정은 찬불가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통해 찬불가의 폭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자 구성됐다. △왜 찬불가를 부려야 할까요? △바리톤 김재일과 함께하는 정겨운 가곡, 정다운 찬불가 △정가(正歌) 찬불가 이해하기 △경전 속의 음악이야기 △계입과 음악이 함께하는 민선희의 '찬불가로 힐링되기' △아름다운 소리 △판소리로 만



동국대 평생교육원이 찬불 힐링 스쿨을 개설 9월 9일부터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간다. 사진은 불교 연합합창단의 공연 장면.

나는 불교 음악 등 총 15주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종교음악 자체가 경건함과 신심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불교 신행의 첫걸음으로 찬불가는 어떻게 인식되고 불러지느냐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찬불힐링스쿨은 이런 점에서 찬불가에 대한 확산과 보급 다양화는 물론 노래를 통해 카타르시스와 환희심이지요. 찬불가가 다양한 장르의 옷을 입고 새롭게 태어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신심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찬불힐

링스쿨은 새로운 형식의 찬불가 창작에도 기여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동국대는 찬불힐링스쿨을 시작으로 평생교육원 불교음악 아카데미를 설립하는 것은 물론 음악전문대학원 과정을 신설하고자 한다. 박 원장은 “찬불가는 앞으로 무한한 변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화가 필요하죠. 전문 교육과정은 찬불가와 관련한 반주자 지휘자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은 물론 입체적 역동적 유기적 시스템을 확보해 불교음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강의는 9월 9일~12월 16일이며 매주 월요일 오후 2~4시 진행된다. (02)2260-3728

정혜숙 기자 bwjhs@hynul.com

## 차명순 '매듭의 멋과 향기'展

8월 29일~9월 3일 라메르갤러리서

한울 차명순 작가의 매듭작품 개인전이 8월 29일~9월 3일 인사동 라메르갤러리에서 열린다. '매듭의 멋과 향기'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옥삼작 노리개, 매미 삼작 노리개, 금부호삼작 직조 노리개 등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참외 비취삼작 노리개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전시를 여는 소감을 얘기한다.

차명순 작가는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을 수료했으며 미국 MIT 대학 전시, 멕시코 국립박물관 전시, 연세대 박물관 초청 전시 및 강의 등을 열었으며 1997년 매듭기능전승자로 지정되었다. (02)779-1741

정혜숙 기자

예로부터 장식 수단이었던 전통 매듭은 오랜 시간을 거쳐 민속 공예의 대표적 분야로 자리잡았다. 과거 손끝으로 전해온 전통 매듭에는 선조들의 생활과 역사 그리고 한국 여성들의 지혜와 예술이 담겨 있다.

작가는 “우리 고유한 문화유산인 전통 매듭을 지키기 위해 40여년 노력해 왔다”며 “이렇게 전통 매듭을 소개할 수 있는

## 다문화가족 위한 찬불 향연 펼친다

풍경소리 '덕신 스님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좋은 벗 풍경소리'가 찾아가는 음악회를 위해 감전을 찾는다. 2013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음악회가 8월 28일 오후 7시 김천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덕신 스님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부제가 붙은 이번 공연은 찬불가 포교를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 중 하나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의 후원을 받아 열리는 이 공연은 대중들이 찬불가를 보다 친근하고 편안하게 접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접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마

련됐다. 풍경소리는 “소외되고 문화혜택이 적은 지역에 찬불가를 보급하는 것은 물론 문화

소외계층에 문화 향유 기회 제공

8월 28일 김천문화예술공연장서

문화교류를 하자는 취지로 다문화 음악회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그 시작으로 마라톤으로 유명한 진오 스님이 센터장으로 있

는 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가 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전한다.

출연진으로는 뉴트리팝스 오케스트라(지휘 이종만)를 비롯해, 테너 허철영(불교 성악가), 테너 이준형, 소프라노 김양희, 대중가수 설유진 등이 출연 화합의 무대를 펼친다.

풍경소리는 “문화적으로 소외 될 수 있는 다문화 가족들에게 대중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아름다운 소통과 함께하는 문화적 기반을 마련하는 음악회가 될 것”이라고 전한다. (02)723-9836

정혜숙 기자

불자가수 아웃사이더 '불후의 명곡' 최종 우승



불자가수 아웃사이더가 '불후의 명곡'에서 최종우승을 차지했다. 8월 17일 방송된 KBS2 '불후의 명곡'은 '장미화 VS 임희숙' 라이벌전이 펼쳐져 랩, 트로트, 록발라드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다.

홍진영과 팀을 이룬 아웃사이더는 신나는 복고풍 무대로 관객뿐 아니라 출연진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두 사람은 불자가수 장미화의 '안녕하세요'를 편곡해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무대를 만들었다. 정혜숙 기자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 II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8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32상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개정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II

추천도서

**영산불교 현지사의 화제의 신간!!**

**영산불교 금강반야바라밀경**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서연 이대성 저, 704쪽, 가격 20,000

금강경오해와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관점의 금강경해설서. 오가해를 비롯해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들이 주로 선(禪)의 입장에서 해설해왔던 일몰승의 입장에서 금강경을 해설한 미증유한 저술. 특히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영문을 함께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신불교 영산불교를 말한다**  
전대기 김중섭 이대성 외 저, 339쪽, 가격 15,000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 2를 읽은 불자지성인들이 <붓다의 메시지>가 불자들에게 미치는 의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천착하고 있는 저자들의 비평서이다. 저자들은 금세기의 불후의 고전이 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부연설명하거나 요약정리하여 이 저서가 던지는 불교사적 의미를 천명하고 있다. 한 저자는 <붓다의 메시지>를 읽고 찬탄과 경이를 금하지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교를 이론 대성취자의 순수하고 청정한 법음의 성서이고 일체법을 통달한 최고의 종교철학서이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지재만현 큰스님 감수, 법상 김중섭 저, 715쪽, 가격 25,000

통상적인 비교종교학의 관점을 넘어서 붓다의 가르침에 입각해 21세기 인류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에 대해서 장단점을 해부한 종교비평서.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우주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인류의 근본적 의문에 대해 최고의 비밀을 파헤치고, 또한 달라이라마의 <한 원자 속의 우주>에서 제기한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답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추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